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사랑대청 우물마루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ison study of Wumul-maru components in upper class Chosun dynasty

홍이경* / Hong, Yi-Kyung

오혜경** / Oh, Hye-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Wumul-maru components in upper class Chosun dynasty. Physical trace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samples were taken from the Sarang-taechong of 6 traditional Korean houses, Yunkyungdang, the ancient Chusa estate, Sunkyojang, Chunghyodang, Yangjindang, Unjoru.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Regarding to the scale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changguit'ul(long board) was 1, chungguit'ul(middle-length board) 5, tongguit'ul(center board) 8, and marunol 98, and the size of changguit'ul was 253×4478mm, chungguit'ul 182×2396mm, tongguit'ul 179×2310mm, and marunol 247×574mm.

2) Regarding to the proportion characteristics, the proportion of changguit'ul was 1:18.2, chungguit'ul 1:16.7, tongguit'ul 1:12.9, and marunol 1:2.62 and the proportion of components was 1:3:4:17.

키워드 : 상류주택, 사랑대청, 우물마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전통주택 계승에 관한 문제는 60년대 이후 시작되어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전통계승의 대상으로서 주택의 실내공간은 그 공간이 지닌 여러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며 이는 실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실내공간의 구성요소 중 바닥은 인간이 안락하게 거주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구성하는 구조물로서 이는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에 관한 연구는 현대의 실내공간에 그 원형을 재현하거나 조형의 모티브로서 디자이너에게 양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바닥에 관한 연구중 온돌구조나 마루구조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우물마루에 관한 각 요소들의 구성방법과 특성에 대해 면

밀히 실측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내구성요소인 바닥중에서 우물마루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찾아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전통문화의 유산을 보존, 기록함과 동시에 또한 현대의 건축가와 실내디자인에게 우물마루에 대한 원형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시키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의 우물마루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성을 찾아 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대상 주택 장귀들의 규모와 비례는 어떠한가?
- 둘째, 연구대상 주택 중귀들의 규모와 비례는 어떠한가?
- 셋째, 연구대상 주택 동귀들의 규모와 비례는 어떠한가?
- 넷째, 연구대상 주택 마루널의 규모와 비례는 어떠한가?

* 정희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박사과정

** 정희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부교수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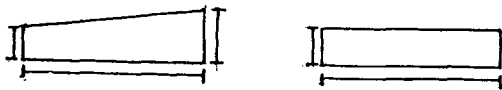
2.1. 연구의 대상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 주거건축으로서 조선시대에 건축되어 현존하는 상류주택중 원형의 보존이 비교적 양호하고 역사적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여섯주택을 각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하였다. 이들 주택은 서울의 창덕궁내 연경당, 충청도 예산의 추사고택, 강원도 강릉의 선교장, 경상도 안동의 충효당과 양진당, 전라도 구례의 운조루로 한 지역에서 조사하였을 때의 연구의 편중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의도 표집된 것이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현존하는 상류주택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안동에서 두 주택을 선정하였다.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현장답사하여 사랑대청의 바닥을 구성하는 요소들(장기틀, 중귀틀, 동귀틀, 마루널)을 실측, 도면화하여 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현장답사는 1차답사(1998년 7월 24일~1998년 7월 30일)와 2차답사(1999년 1월 17일~1999년 1월 22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차 답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2차 답사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요소들의 특성을 규모와 비례로 나누어 수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요소들의 규모는 개수와 크기로 파악하였다. 이때 요소들 대부분은 직사각형의 형태로서 요소의 짧은 부분은 가로로, 긴 부분은 세로로 실측하였다. 요소별 실측방법으로 장귀틀은 세로 양변의 길이가 식별가능하게 차이가 있었던 선교장은 양변 모두를 실측하였고, 나머지 주택의 장귀틀은 가로, 세로 각각 한변만을 실측하였다<그림 1>. 중귀틀, 동귀틀은 역시 한변씩을 기준으로 실측하였다. 마루널은 식별하기에 가장 큰 최대치의 가로, 세로의 길이, 가장 작은 최소치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실측하였다. 또한 각 요소들의 비례는 요소들의 크기에 대한 비례인 가로:세로의 비로 추출하였다.



<그림 1> 장귀틀의 실측방법

2.3 연구의 제한점

우물마루 바닥에 대한 원형을 밝히려는 연구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의 바닥 모두를 조사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섯주택 사랑대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우물마루의 구성요소별 치수를 실측함에 있어서 약간의 실측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1) 현존하는 상류주택은 주남철(1997)의 『한국주택건축』을 참고하였는데, 경상도에서 9주택, 서울에서 8개, 강원도에서 6개, 충청도에서 4개, 전라도에서 2개로서 경상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3. 연구의 결과

3.1. 우물마루 전체의 규모와 비례

우물마루 전체의 규모를 보면, 추사고택이 1間, 2660×3000mm(7.98㎡, 2.42평)으로 가장 작았고, 연경당이 2間, 4870×3475mm(16.92㎡, 5.13평), 충효당이 4間, 4680×5000mm(23.40㎡, 7.09평), 운조루가 2間 5000×5000mm(25㎡, 7.58평), 선교장이 4間, 5130×5010mm(25.70㎡, 7.79평), 그리고 양진당이 6間 7840×4565mm(35.79㎡, 10.84평)으로 가장 컸다. 따라서 이들 사랑대청 실의 규모는 최소7.98㎡~최대35.79㎡(2.42평~10.84평), 평균 22.47㎡(6.81평)으로 이로서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 규모의 범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각 주택의 1間에 따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운조루가 12.5㎡(3.79평)으로 다른 주택의 1間 크기에 비해 큰 면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운조루가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규모에 대한 규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허용정도가 용이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주택에서는 1間을 이루는 척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이들간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間이라는 규격화된 특성과 함께 융통성을 동시에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2. 장귀틀의 규모와 비례

우물마루를 구성하는 요소중 장귀틀을 개수와 크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귀틀의 수는 추사고택 0개, 연경당 1개, 운조루 1개, 충효당 1개, 선교장 1개, 양진당 2개로 최소 0개~최대 2개, 평균은 1개였다. 이들을 실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실의 크기가 1間일 경우 0개, 2間~4間은 1개, 6間일 경우 2개가 존재하는데 이는 조사 대상 주택 間의 구성방법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즉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1間에서는 장귀틀이 존재하지 않고, 6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2間의 규모에서는 2개의 기둥이 3열로 늘어선 형태이기 때문에 장귀틀이 1개 존재하고, 9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4間 규모에서도 3개의 기둥이 3열로 늘어선 형태이기 때문에 중앙의 3개 기둥을 연결하는 장귀틀이 1개 존재하며, 양진당의 경우에서처럼 6間규모에서는 3개의 기둥이 4열로 늘어선 형태이기 때문에 중앙의 3개 기둥을 연결하는 장귀틀이 2개 존재한다. 따라서 1間의 규모에서는 장귀틀이 존재하지 않고 최소 2間이상에서 間의 배열형태에 따라 장귀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그림 2>.



<그림 2> 間수에 따른 장귀틀의 수

장귀들의 크기를 주택별로 살펴보면, 연경당의 장귀들은 200×3375mm, 운조루 240×4880mm, 충효당 330×4505mm, 선교장은 최소 190×4980mm, 최대 230×4980mm, 양진당 245×4565mm, 275×4565mm로서 연경당 장귀들이 가장 작았고 충효당의 장귀들이 가장 컸다. 한편 이들 장귀들의 경우 가로길이(기둥과 접하는 길이)는 최소 190mm~최대 330mm, 평균 244.3mm였고, 세로길이(대들보 방향의 긴 축의 길이)는 최소 3375mm~최대 4980mm, 평균 4478mm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주택 장귀들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244.3×4478mm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장귀들이 1개의 목재로 구성되어졌음을 감안해 보면, 당시에 사용된 목재의 크기를 어느정도 짐작케 하며, 서울의 주택에서 보다는 지방의 주택에서 큰 목재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귀들의 비례를 살펴보면, 연경당은 1:16.9, 선교장은 최소 1:26.2, 최대 1:21.7, 충효당은 1:13.7, 양진당은 1:18.6, 운조루는 1:20.3로 평균 1:18.7의 비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비례는 사랑대청의 구조와 관계된 것으로 즉, 間의 크기에 따라 그 비례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3. 중귀들의 규모와 비례

중귀들의 규모를 살펴보면, 개수는 추사고택 2개, 연경당 6개, 운조루 4개, 충효당 5개, 선교장 8개, 양진당 6개로 최소2개~최대 8개, 평균은 5개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구성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각 주택의 사용재료와 구성방법에 따라 중귀들은 어떤 일관된 구성적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크기면에서는 연경당의 중귀들이 90×2245mm로 가장 작았고, 추사고택의 중귀들이 238×2900mm로 가장 컸다. 이들 중귀들의 경우 가로길이는 최소 90mm~최대 285mm, 평균 182mm를, 세로길이는 최소 1795mm~최대 3475mm, 평균 2396mm로 조사대상 주택 중귀들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182×2396mm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중귀들의 비례를 살펴보면, 연경당은 1:29.3, 추사고택은 1:25.6, 선교장은 1:13.1, 충효당은 1:13.0, 양진당은 1:10.8, 운조루는 1:8.3으로 평균 1:16.7의 비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비례는 장귀들의 비례보다 더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귀들이 각 주택별로 다양한 치수와 접합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4. 동귀들의 규모와 비례

동귀들의 경우, 그 수는 추사고택 3개, 연경당 10개, 운조루 8개, 충효당 8개, 선교장 8개, 양진당 12개로 최소 3개~최대 12개, 평균 8개였다. 크기면에서는 연경당의 동귀들이 120×2245mm로 가장 작았고, 추사고택의 동귀들이 220×2900mm로 가장 컸다. 즉, 동귀들 가로길이(장귀들, 중귀들과 접하는 면의 길이)는 최소 120mm~최대 260mm, 평균 179mm였고, 세로길이(마루널과 접하는 면의 길이)는 최소 2070mm~최대 2900mm, 평균 2310mm였다.

또한 동귀들의 비례를 살펴보면, 연경당은 1:18.0, 추사고택은 1:13.4, 선교장은 1:12.4, 충효당은 1:10.1, 양진당은 1:14.6, 운조루는 1:9.0으로 평균 1:12.9의 비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동귀들의 비례는 주택별로 보았을 때 다른 요소들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또한 장귀들이나 중귀들보다는 작은 비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사랑대청 바닥의 규모

(단위: mm)

	실의 크기	구성요소			
		장귀들	중귀들	동귀들	마루널
연경당	4870×3475 16.92㎡ 5.13평	200×3375	90×2245	120×2245	m: 255×422 M: 280×484
			95×2245	120×2245	
			88×3475	125×2245	
			90×3475	130×2245	
			90×2245	128×2245	
			90×2245	120×2245	
				120×2245	
				125×2245	
				130×2245	
				128×2245	
추사고택	2660×3000 7.96㎡ 2.42평		238×2900	220×2900	m: 110×445 M: 320×450 총 42개
			215×2900	215×2900	
				215×2900	
선교장	5130×5010 25.70㎡ 7.79평	m:190×4980 M:230×4980	205×2295	170×2245	m: 160×625 M: 285×705
			205×2370	170×2245	
			180×2245	195×2245	
			115×2245	190×2245	
			180×2250	170×2250	
			115×2250	170×2250	
			200×2295	195×2250	
			200×2370	190×2250	
충효당	4680×5000 23.40㎡ 7.09평	330×4505	125×2310	200×2310	m: 142×625 M: 317×740
			125×2280	240×2310	
			180×2555	240×2210	
			180×2100	195×2070	
			240×1795	200×2280	
				240×2280	
				240×2100	
양진당	7840×4565 35.79㎡ 10.84평	245×4565 275×4565	230×2470	145×2470	m: 178×645 M: 310×775
			230×2400	165×2470	
			230×2320	135×2470	
			215×2470	210×2470	
			215×2400	145×2400	
			215×2320	165×2400	
				135×2400	
				210×2400	
				145×2320	
				165×2320	
	135×2320				
	210×2320				
운조루	5000×5000 25㎡ 7.58평	240×4880	285×2210	250×2210	m: 240×480 M: 372×500
			245×2210	240×2210	
			285×2190	225×2210	
			245×2190	260×2210	
				250×2190	
				240×2190	
				225×2190	
				260×2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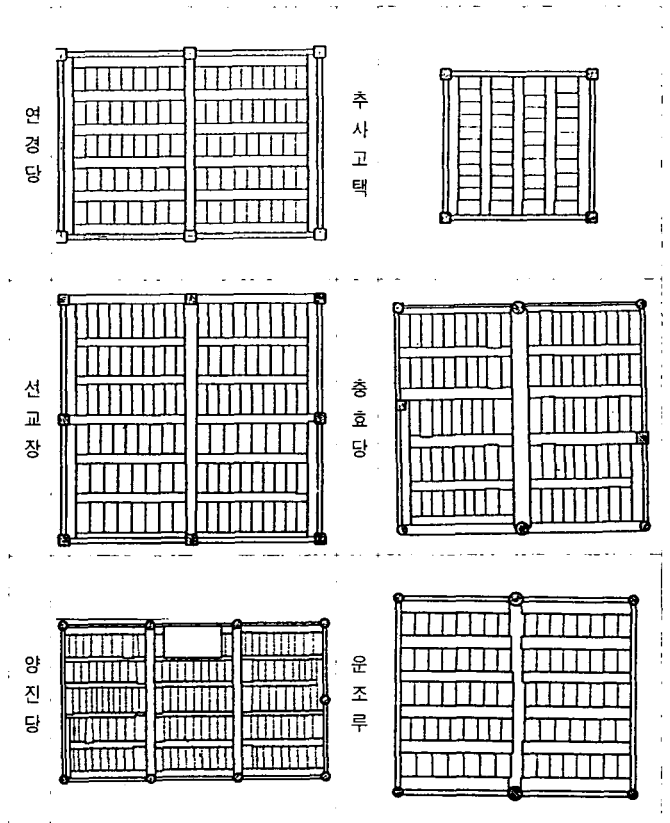
m: 최소치 M: 최대치

3.5. 마루널의 규모와 비례

마루널의 경우, 그 수는 추사고택 42개, 연경당 108개, 운조루 78개, 충효당 95개, 선교장 111개, 양진당 155개로 최소 42개~최대 155개, 평균은 98개였다. 크기면에서 보면, 추사고택 마루널은 최소 110×445mm, 최대 320×450mm, 연경당은 최소 255×422mm, 최대 280×484mm, 운조루는 최소 240×480mm, 최대 372×500mm, 충효당은 최소 142×625mm, 최대 317×740mm, 선교장은 최소 160×625mm, 최대 285×705mm, 양진당은 최소 178×645mm, 최대값은 310×775mm였다. 즉 이들 마루널의 크기는 가로길이(동귀틀과 접하는 면의 길이)가 최소 110mm~최대 372mm, 세로길이(장귀틀, 중귀틀과 접하는 길이)가 최소 422mm~최대 775mm로 평균 247×574mm였다.

또한 마루널은 최대치와 최소치의 평균값으로 그 비례를 판단하였는데, 연경당은 평균 1:1.69, 추사고택은 1:2.73, 선교장은 1:3.19, 충효당은 1:3.37, 양진당은 1:3.06, 운조루는 1:1.67의 비례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평균 1:2.62의 비례를 가지고 있었다. 마루널은 주택별로 그 크기가 다양하여 한 주택에서도 다양한 비례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각 요소별 평균 비례를 살펴보면, 우물마루를 구성하는 장귀틀:중귀틀:동귀틀:마루널의 비는 4:11:16:69로 약 1:3:4:17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물마루를 구성하는 요건중 마루널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고 다음이 동귀틀, 중귀틀, 장귀틀의 순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대상 주택의 우물마루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 연구대상 주택의 우물마루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의 우물마루를 구성하는 요소인 장귀틀, 중귀틀, 동귀틀, 마루널을 실측하여 이들의 규모와 비례를 찾아 비교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장귀틀은 평균 1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크기는 244.3×4478mm로 비례는 평균 1:16.7을 나타내고 있었다.

② 중귀틀은 평균 5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크기는 182×2396mm로 중귀틀은 구성방법에 있어서 각 주택별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비례는 평균 1:18.2로서 주택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③ 동귀틀은 평균 8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크기는 179×2310mm로 비례는 평균 1:12.9의 비례를 나타내었다. 동귀틀은 주택별로 규모별, 비례별 차이가 가장 크지 않았다.

④ 마루널은 평균 98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크기는 평균 247×574mm로 전체 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례는 주택별로도 다양하였고, 한 주택내에서도 그 최대값과 최소값에 차이가 많아 다양한 비례를 나타내었다. 비례는 평균 1:2.62였다.

⑤ 우물마루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비는 장귀틀:중귀틀:동귀틀:마루널이 4:11:16:69로 약 1:3:4:17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면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사랑대청 대청 바닥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표집을 다양하게 하고, 바닥 뿐만 아니라 벽, 천장, 창문등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신영훈(1993), 한국의 살림집상, 하, 열화당.
2. 염근호(1990), 우리나라 전통 정주공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이도희(1980), 조선조 창살문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정인국(1991),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5. 주남철(1970), 이조말부터 1945년도까지의 한국의 주택 변천, 대한건축학회지 14권 38호.
6. 주남철(1987),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7. 주남철(1997),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8. 천병옥(1957), 이조시대 주택의 장식적 의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최상현(1992), 조선상류주택 내부공간과 인체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홍형욱(1992), 한국 주거사, 민음사.